

(2020 환경거버넌스모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모임명 :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초록천사

모임대표자 : 손 철 옥

모임참가자 : 박 임 선

김 민 재

김 동 옥

김 진 현

임 미 옥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본문)

1. (주제) : 아이스팩 처리 및 재사용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2. (기간) : 2020. 9. 1~ 11.30.
3. (목적) : 코로나19로 사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아이스팩의 처리 및 재사용(재활용 포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의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후, 정부(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스팩 재사용의 정책을 제안코자 함.
4. (활동가 및 참여 인원)
 -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및 활동가 6명
 - 청소년 환경리더 초록천사 50명
5. (연구(활동)방법)
 - o 환경정화 활동 병행 : 초록천사와 함께 도시지역 환경정화 활동 실천(6회)
 - o 문제점 분석 : 아이스팩 처리 및 재사용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 o 전문가 회의 및 자문
 - o 시민의식 설문조사 :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 후 결과 분석
6.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제안 : 경기도 및 수원시에 개선방안 제안

□ 머리말

- o 환경부가 환경과 자연 보호의 정부 부처임에도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절대적 목표로 하는 모든 정부에서 제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환경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기업은 규제라며 반대하고 심지어 정부 내 각종 산업부처(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의 반발도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반발과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부처의 존재 의의가 무색한 것으로 보인다.
- o 현재의 환경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앤다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환경 보호 규제는 경제성장을 해칠 수밖에 없으며, 환경 보호 규제가 경제 성장과 반드시 상충적이므로 결코 경제 성장을 수반하는 환경 보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간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고 훼손해 왔듯이, 그 반대로 환경을 위해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흔히 연 3% 성장을 통상적인 경제성장률로 보지만, 그것이 달성되려면 전 국민의 소비가 실질 단위로 연 3% 씩 늘어나야 하는데, 인간이 하루 3끼 먹지, 30끼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 o 아이스팩은 물론이고 쓰레기, 폐기물 등을 처리 및 재활용하는데 있어 환경 파괴적 요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비용이 따르게 된다. 그 경제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소비자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강제로 나서서 생산자든 소비자든 누구에게라도 비용 부담을 시켜 환경 파괴적 요소를 낮추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 및 지자체의 환경과 자연 보호를 위한 정책 의지가 중요하며, 강력한 의지로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환경 보호 규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o 아이스팩 사용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절대적인 표준 방법을 정부가 제시하고 강력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스팩 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 폐기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전히, 분리

수거 방식이나 처리 방식이 모호한 사항이 많다. 그래서, 분리 수거에 호의적인 국민조차도 일부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아이스팩 생산을 표준화시키는 규제를 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원천 금지시킬 수도 있으며, 아이스팩 생산 기업에 대해서 기업별 생산 한도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탄소배출권과 같이 아이스팩 배출권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배출권만큼만 무료로 버릴 수 있으며, 그 이상은 금지 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할 것이다.
- 수원시의 보도자료에 보듯이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거한 아이스팩을 실제로 활용해 자원 낭비를 막는 것”일 것이다.
- 전문가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등을 조사한 후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의코자 한다.

□ 연구 배경

- 코로나19 이후 아이스팩 사용 급증으로 중요 이슈화
- 언택트 시대 신선식품 배송시 아이스팩 부피 및 무게 상당
- 예전에는 그냥 버렸는데, 2019 사용량이 2억개. 폐기하면 분해되는데 500년. 미세플라스틱 발생
- 친환경 아이스팩의 경우 고가. 친환경 종이 아이스팩도 코팅제때문에 문제.
- 재사용 또는 재활용 사례
 - 지자체 분리수거함 운영
 - 아파트 단지와 행정복지센터 연계 수거
- 연구 목표
 -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비용부담에 대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요구 필요
 - 정부 주도의 재사용(재활용) 시스템 필요
 - 기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실시

□ 연구 경과

- (09.20.) 사업계획 수립 : 아이스팩 사용 관련 연구 및 개선방안 제안
- (10. 6.) 특강 및 토론 : 유혜정 처장, 의견 수렴
- (10. 9.) 아이스팩 설문조사
- (10.18.) 환경정화 활동 및 숲해설
- (10.24.)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 2.) 경기도에 제안
- (11. 3.) 경기도 회신(※붙임 참조)
- (11.20.) 수원시의원 면담 - 정책 제안

□ 주요 사업 결과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서)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설문

1. 아이스팩이 포함된 상품을 한 달 평균 몇 회 구입하십니까?
① 1회 미만 ② 2회~3회 ③ 4회~5회 ④ 6회~9회 ⑤ 10회 이상
2. 현재 아이스팩의 문제(사용실태 및 재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 ② 조금 문제 있음 ③ 거의 문제 없음 ④ 전혀 문제 없음
3. 아이스팩은 주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① 재활용(재사용 포함)한다 ② 버린다
4. 아이스팩을 재활용(재사용 포함)할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① 식품보관/배송용 재사용 ② 하수구 냄새/벌레 차단용 재활용
③ 방향제용 재활용 ④ 화분 수분조절용 재활용
⑤ 찜질팩용 재활용 ⑥ 기타()
5. 아이스팩을 버릴 경우, 주로 어떻게 버리십니까?
① 종량제봉투에 그대로 배출 ② 내용물과 비닐을 분리해 배출
③ 아이스팩 수거함에 배출 ④ 기타 ()
6. 앞으로 아이스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① 아이스팩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②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유통
③ 소비자의 재활용방법 교육 및 홍보 강화
④ 소비자와 기업의 자율적 협력
⑤ 기타()

성별 (남, 여) 연령 ()대 지역()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총응답자 : 126명
- 조사시기 : 2020.10. 8. ~ 2020.10.14.
- 설문내용 및 결과
 1. 아이스팩 포함 물품 구입횟수
1회미만 59명(46.8%), 2~3회 40명(31.7%), 4~5회 16명(12.7%), 6~9회 4명(3.2%), 10회이상 4명(3.2%), 무응답 3명(2.4%)
 2. 아이스팩 문제 심각성
매우 심각 74명(58.7%), 조금 문제있음 43명(34.1%) : 92.8%
거의 문제없음 6명(4.8%), 전혀 문제 없음 1명(0.8%) 무응답 2명(1.6%)
 3. 아이스팩 처리
버린다 64명(50.8%), 재활용(재사용포함) 60명(47.6%), 무응답2명(1.6%)
 4. 재활용(재사용)방법
식품보관 87명(69.0%), 찹질팩 8명(6.3%), 무응답 20명(15.9%)
 5. 폐기 방법
종량제봉투에 배출 88명(69.8%), 내용물과 비닐 분리배출 20명(15.9%)
아이스팩 수거함에 배출 8명(6.3%), 무응답 4명(3.2%)
 6. 아이스팩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
아이스팩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49명(38.9%)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유통 48명(38.1%)
소비자의 재활용방법 교육 및 홍보 19명(15.1%)
소비자와 기업의 자율적 협력 5명(4.0%)
기타 3명(2.4%), 무응답 2명(1.6%)

(경기도에 제안 및 답변)

아이스팩 사용 관련 제안(11. 2.)

[제안 제목] 아이스팩 분리 수거함 설치 및 수거보상제 실시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아이스팩 사용 급증으로 중요 이슈화
- 언택트 시대 신선식품 배송시 아이스팩 부피 및 무게 상당
- 예전에는 그냥 버렸는데, 2019 사용량이 2억개. 폐기하면 분해되는데 500년. 미세플라스틱 발생
- 친환경 아이스팩의 경우 고가. 친환경 종이 아이스팩도 코팅제때문에 문제.

[개선방안]

- 1.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설치 :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
- 2. 아이스팩 수거 보상제 실시 : 아이스팩을 모아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보상 (일부 기초지자체 시행 중). 경기도 전역에 확대 실시가 필요함.

[기대효과]

- o 일반쓰레기 배출량 감소
- o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자원절약
- o 보상제 병행으로 시민 참여 유도

[경기도 답변](11. 3.)

안녕하십니까? 참여마당 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는 '20년 3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함 160개를 제작 후 6개 시(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동두천)에 배포하여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천, 남양주, 광명 등도 시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21년에는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아이스팩 충전재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소재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23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 외 처리사유 중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조항에 해당되어, 비제안으로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스팩 관련 시책 제안

o 일시 : 2020. 11. 20. 10:00

o 면담자 :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o 제안 내용

▶ 아이스팩 분리 수거 추진

- 아이스팩 수거 보상제 실시 : 아이스팩 5개 당 10리터 종량제봉투
-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재사용 가능 아이스팩) 세척 및 소독 후 재사용
(재사용 불가능 아이스팩) 건조 후 폐기
(물형태 아이스팩) 포장만 분리 수거

▶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

(아이스팩 재사용 흐름도)

아이스팩 분리 수거 ⇒ 인센티브 보상 ⇒ 소독 ⇒ 재사용처 배부

